받침은 一層부터 各五、四、四段임 澗松께서 日人과 熾烈한 競爭끝에 入手하였다고함。

實測値(單位cm)

基壇高　幅　撐柱幅　甲石長　甲石厚

五〇・五　九五・五・　一四・〇　一三・〇　八・一五

屋身高　幅　隅柱幅　屋蓋長　轉角

一層　五三・〇　六三・五　一一・〇　一〇一・〇　一一・〇

二層　二二・〇　四一・五　八・〇　八二・〇　九・〇

三層　一八・五　三五・〇　七・〇　六一・〇　七・二

(附) 塔材(塔婆目錄 P. 4 NO. 26)

二枚石으로된 地臺石上에 屋身이 하나 놓였는데 一面佛(如來坐像)이 있고 上面에 舍利孔이 마련되어 있음이 注目된다(正四角形으로 판속에 圓孔) 甲石一、屋蓋石이 三箇남아 있다。手法으로 보아 麗代作인듯、

實測値(單位cm)

屋身高　幅　隅柱幅　佛像高　舍利孔一邊長　同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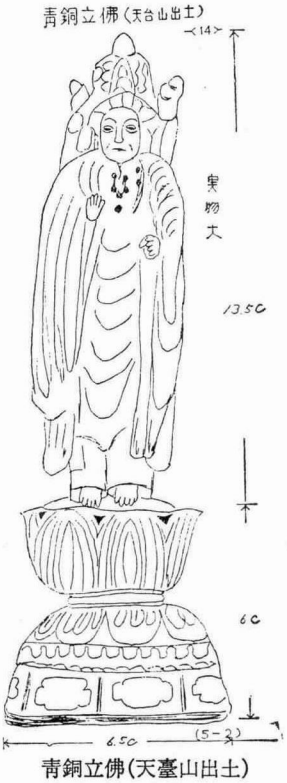
四八・五　五七・二　一一・五　三六・〇　二三・〇　八・五?

追記:이 塔은 今年 二月 三日 浮屠再建時(塔婆目錄 P. 3 NO. 22)옮겨져 他塔의 屋蓋石과 함께 屋蓋石만을 五枚쌓아올려짐(但 四層屋蓋石은 위에屋身造出) 또 그옆에 鍵形이 模刻된 屋身위에 屋蓋石만이 二枚 덮여진塔도 세워짐。

靑銅製立佛

洪　思　俊

去年十二月頃에 入手한 靑銅立佛은 昨年秋期에 洪城郡 長谷面 天臺里 天臺山麓에서 耕地整理를 하다가 農夫가 發見한 것이라야하는데 高麗末로 推定되는 立佛이다。立佛의 形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靑銅立佛(天臺山出土)

머리에는 寶冠을 썼고 寶髮이 左右兩肩後로 드리어 있고 天衣는 발끝까지 느러졌고 가슴에는 瓔珞이 걸쳐 있다。面相도 毅然한 態에 左手는 주먹을 쥔채 앞으로 내밀었고 右手는 손을 펴서 施無畏印을 한것이다。前面에서 볼적에 몸이 若干 右側으로 비트른 感이 있는데 左便의 右腕을 意外로 右側에 치우친 關係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蓮臺座는 上下蓮臺로 되었는데 蓮辨이 雙葉으로 되어졌다。그리고 下蓮臺 아래에는 眼象이 陽刻되어 있다。上下蓮花文과 下眼象은 둥근臺座에 各八區의 區域으로 나눠져 있다。後面에도 頭髮과 衣文이 陽刻하여 있다。各線條가 鈍한 便이다。胸部內面에는 鐵足이 가로걸쳐 있는데 製作時에 型을 保存하기 爲한 鐵足으로 認定된다。

이 作品은 그리 拙作도 아니고 그리 傑作品도 아니나 當代의 佛像研究에는 一助가 있을듯한 立佛로 보인다。

總高 一九・五cm 立佛高 一三・二cm

이 靑銅製立佛 全面에는 胡粉을 칠한듯 靑綠色이 全面을 덮었는데 다시 손질하여 보니 製作時의 靑銅佛色이 나타났음을 添言하여 둔다。

驪州 金沙面 石佛坐像

李　殷　昌